그랜저 하이브리드  연비·파워·정숙성 다 잡았다

'국산 하이브리드의 끝판왕'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

공인 연비 16.2km/L 경차급 경제성
8.6% 출력 개선…최고 159마력 갖춰
능동부밍제어 등 신기술로 소음 차단

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준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5월에만 1845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194.7%나 늘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6개월 연속 1만대 이상이 판매되며 준대형차 시장에서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랜저(가솔린·디젤 모델)의 매력에 경차급의 연비와 하이브리드차 특유의 정숙성까지 더해졌으니, 인기가 없는 것이 도리어 이상할 정도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봤다.

●그랜저하이브리드, 준대형 고급차 연비가 16.2km/L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는 16.2km/L다. 경차인 신형 모닝(15.4km/L)보다 뛰어나다. 고급 준대형차가 이 정도 연비라면 데일리카로 타고 다녀도 부담이 없다.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약 20km 구간에서 연비 운전을 해 본 결과 계기판에 표시되는 연비는 17.2km/L를 기록했다. 이후 약 20km 구간에서는 도로 흐름에 따라 충분한 가속과 감속을 이어가며 연비를 의식하지 않는 편드라이빙을 했다. 연비는 13.5km/L가 나왔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연비다. 연비를 의식하지 않고, 하이브리드가 처음인 운전자가 마음껏 차를 몰아도 12~14km/L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 모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연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운전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할 때는 계기판에 표시되는 '에너지 흐름도'를 보며 운전하는 것이 연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주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회생제동을 통해 전기 배터리가 충전되고, 반대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에서 엔진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서 탄력 주행과 예측 운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비 운전 습관이 몸에 익는다. 장시간 주행할수록 연비를 늘려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신형 그랜저하이브리드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이 처음인 운전자들을 위한 '에코 코스팅' 기능도 갖춰져 있다. 하이브리드 전용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을 통해 감속 상황이 예측되는 시점에 가속 페달 해제 시점을 미리 알려줘 자연스럽게 연비 운전을 하도록 해준다.

●시동을 걸 때, 저속에서, 고속 구간에서도 탁월한 정숙성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바로 높은 정숙성에 있다. 일단 시동을 걸어도 일반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과 달리 엔진 소음이 없다.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 모드만 'ON' 되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 출발해도 일정 속도까지는 전기 모드로만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

전기모드에서 가솔린 모드로 넘어가는 순간도 부드럽게 연결되며 이질감이 없다. 이전 모델보다도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이다.

전기모드가 끝나고 가솔린 엔진이 사용되는 저속구간에서도 그랜저 특유의 정숙성은 빛을 발한다. 주행시 사용 빈도가 높은 엔진 저회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엔진의 소음·진동을 '모터의 역방향' 토크를 통해 상쇄하는 '능동부밍제어'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어 3중 실링, 전면 윈드실드 및 앞좌석 도어 글라스에 차음 필름이 내장된 이중접합 차음 유리 적용 등을 통해 고속 주행시의 풍절음과 고주파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실제 주행해보면 각종 로드 노이즈와 풍절음이 잘 억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 주행시의 엔진 소음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단단한 주행감성과 넘치는 파워

하이브리드차는 연비 향상만을 위해 만들어져 파워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오해일 뿐이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최고출력 159마력(ps), 최대토크 21.0kgf·m의 출력을 발휘하는 세타II 2.4 MPI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기존 모델 대비 8.6% 출력이 개선됐다. 실제로 중속 구간에서 추월 가속을 해보면 이전 모델보다 훨씬 수월하게 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6단 변속기에 특화되어 적용된 '래퍼드 다이나믹 킥다운' 기술도 만족스럽다. 운전자가 부드럽게 가속페달을 밟을 때와 세게 밟아 급가속을 할 때의 변속 타이밍이 달라 원하는 만큼의 가속 성능을 얻을 수 있다. EV 모드에서의 초기 가속 능력도 충분히 빨라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현대 스마트 센스' 등 첨단 신기술 대거 적용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보행자 인지 기능 포함),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ABSD), 부주의 운전경보 시스템(DAA),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등이 포함된 지능형 안전 기술 패키지인 '현대 스마트 센스'를 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기능 필요 없다 싶을 수 있지만, 일단 사용해 보면 없어서는 안 될 기능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차를 소유하는 동안 이 첨단 기능들을 통해 크고 작은 사고를 한 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옵션가격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3540만~3970만원(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후 기준)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주요 제원 비교표

구분		구형 그랜저(HG) 하이브리드	신형 그랜저(IG) 하이브리드	신형 그랜저(IG) 2.4 가솔린
기본제원(mm)	전장	4910	4930	4930
	전폭	1860	1865	1865
	전고	1470	1470	1470
	축거	2845	2845	2845
엔진	배기량(cc)	2359	2359	2359
	엔진 최고출력(ps)	159	159	190
	엔진 최대토크(kgf · m)	21	21	24.6
	모터 최고출력(kW)	35	38	-
	모터 최대토크(Nm)	205	205	-
변속기		하이브리드 전용 6단	하이브리드 전용 6단	자동 6단
공차중량(kg)	(17인치 기준)	1680	1675	1550
공인연비 (복합)	신연비 (17인치 기준)	자료 없음	16.2 (1등급)	11.2 (4등급)
	구연비 (17인치 기준)	16.0 (1등급)	17.3 (1등급)	11.8 (4등급)




그랜저 하이브리드 실내 인테리어



그랜저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연비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최신기술을 적용해 준대형급 최고인 복합연비 16.2km/L를 달성했다. 또한 각종 선호사양 기본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대 스마트 센스'를 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쪽쪽 반려견 "개더위 몰라용~"

반려견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

더울 땐 반려동물 전용 아이스크림 먹고
양양 '멍비치' 갈땐 견공도 래시가드 입고
방콕피서는 시원한 '애견 돌침대'서 멍멍~

펫

해운대, 송도 해수욕장 등 전국 257개 해변이 이미 오픈했거나 개장을 며칠 앞두고 있다. 최근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반려견을 둔 보호자들도 여름나기 준비에 돌입했다. 반려견은 정상체온이 사람보다 2~3도 가량 높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덮인 털과 땀 배출을 통한 체온조절 능력이 없어 더운 여름이면 열사병으로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려견 전용 아이스크림부터 바캉스 필수 아이템 애견 수영복까지 더위를 식혀줄 물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타일+피부 건강 '애견 래시가드'

더위를 피해 반려동물과 바캉스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강원도 양양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멍비치'가 개장하면서 반려동물과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반려동물 몸 전체를 덮는 애견 래시가드는 뜨거운 여름 자외선으로부터 반려견의 피부와 피모를 보호해준다. 또 물과 땀을 빠르게 건조하는 소재로 만들어 물놀이 후 급격하게 낮아지는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천연 대리석 돌침대

강아지들의 경우 실내 온도가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심한 더위를 느끼며 28도부터 체온 상승하게 된다. 반려동물은 온몸이 털로 덮어 있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을 쐰다 해도 피부까지 닿지 않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보니 집안 서늘한 곳에 반려동물이 누워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동아테크 애견 돌침대'는 천연 대리석으로 만들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시원함을 오랫동안 유지해 여름철 반려견의 체온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천연대리석은 오염물질이 흡수되지 않아 오랫동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천연대리석 쿨매트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려동물의 체온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2분 만에 3도 가까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만약 당장 쿨매트 사용이 어렵다면 수건에 물을 적셔 반려동물의 목덜미를 5분에서 10분정도 냉찜질 해주는 것도 더위에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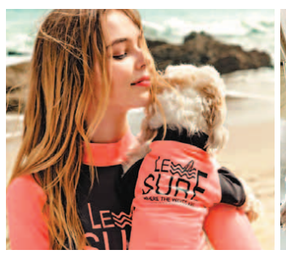
●입부터 시원하게, '반려동물 아이스크림'

반려동물 간식도 계절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여름 간식의 대표주자 아이스크림을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 판매해 눈길을 끈다. 천연 재료 아이스크림 브랜드 '펠앤콜'에서는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호준 대표는 "반려동물 아이스크림을 찾는 손님들이 일 년 내내 방문하지만 특히 여름이면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위해 찾아온다"며 "딸기, 망고, 블루베리 요거트 등 반려견의 입맛에 맞춰 판매하고 있고, 유제품을 전혀 못 먹는 반려견을 위해 특별히 주문을 받아 두유나 아몬드밀크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수박을 갈아 주거나 옥수수차를 우려내 시원하게 급여하는 것도 반려동물 여름 보양식으로 활용하기 좋다.

청담우리동물병원 김형진 내과팀장은 "여름에 반려견도 사람과 똑같이 일사병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차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기온이 높은 날 무리해서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실내에서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면 쉽게 감기나 냉방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는 계절인 만큼 주의를 기울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담희 객원기자





반려견을 위한 여름철 제품이 다양하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맞춰 입을 수 있는 커플 래시가드와 반려견의 체온을 낮춰주는 애견 돌침대, 천연재료로 만든 반려동물 전용 아이스크림(왼쪽부터) 등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 | 엑심 엘르·동아테크·펠앤콜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반려견 교육의 핵심은 '흥분 관리'



최인영의 반려동물 SOS

밥을 보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사료를 엎는 반려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반려견 교육의 핵심은 바로 '흥분 관리'에 있다. 흥분은 모든 문제 행동의 출발점이다. 특히 반려견은 먹을 것을 봤을 때 가장 쉽게 흥분한다. 많은 보호자가 먹을 것에 흥분하는 반려견의 모습을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먹이를 줄 때는 우선 반려견을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다. 반려견을 진정시키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앉아'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만약 반려견이 지시에 따랐다면 바로 먹이를 주면 되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10초 정도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다시 시도한다. 다만 기간을 너무 오래 두거나 아예 먹이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려견은 음식을 쳐다보다가 잠시라도 앉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칭찬하며 먹이를 준다. 여러 번 반복해 조금씩 습관이 되면 그다음엔 앉은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게 한 후 먹을 것을 주면 더욱 예의 바른 반려견이 된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밥에 흥분하는 반려동물의 모습이 안 좋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반려견의 식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다. 대다수 반려견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해치운다. 허겁지겁 먹는 습관은 음식을 과잉섭취하게 만들며 먹이에 소비하는 에너지와 시간을 줄여 다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가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푸드퍼즐'을 활용하는 것이다. 퍼즐처럼 생긴 장난감에 사료나 간식을 넣어주면 반려견은 먹을 것을 꺼내기 위해 장난감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된다. 반려견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사료를 천천히 먹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놀이가 되기도 한다.

푸드퍼즐 대신에 천 속에 간식을 숨겨두는 노즈워크를 활용하거나 사료를 바닥에 넓게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좋아하는 간식을 반려견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반려견이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것도 안 되지만 반려견이 한눈에 찾을 수 있거나 매일 똑같은 장소에 놓는 것도 좋지 않다.

부패하는 간식을 숨길 때는 반려견이 상한 것을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먹이와 관련해 보호자의 태도는 반려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보호자가 보인 행동으로 반려견이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의하도록 하자.

러브펫코리아동물병원 대표원장

최인영 수의사

▲러브펫동물병원 대표원장(타임스퀘어점, 홈플러스 중계점) ▲SK BTV 85번 마이펫 티비-신지의 궁금해요 펫닥터 MC ▲㈜러브펫코리아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이사 ▲서울시 수의사회-반려동물 행동의학팀 수의사 ▲영등포수의사회 부회장 ▲한국중고육상연맹 이사